

[새신자예배 초대글]

나는 메뚜기다 믿는 사람들

다른 사람들은 거인이요,
나는 그들에게 밟히는 메뚜기다 여기는
나는 혹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?
또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
거인처럼 크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으셨나요?
우리의 참 모습은 어떠■나 모습일까요?
지나치게 크지도, 초라할 만큼 작지도 않은
나의 변함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. . .
바로 그 거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
오늘,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신
그 분의 생명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.
너무나 소중한 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.

(참고 : 예배주제-열등감)

* 출처 : 온누리신문